

# 현명한 영어교육은 과학기술 밑거름

오래 전 필자는 제자 한명을 데리고 미국 대학에 1년간 연구연가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 학생은 생소한 환경과 언어 때문에 처음에는 어눌하고 소극적이었지만 6개월 정도 지나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잠재 능력들을 서서히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각종 논문발표, 세계적 석학들과의 학술교류 등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했으며, 지금은 자기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자리잡고 있다. 그 뒤에도 몇몇 제자들로부터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새 천년 들어서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영어교육인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총리자문기구가 영어공용화를 제시하였고, 일부 정당에서는 영어공용화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린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완전히 영어로만 실시키로 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영어사용의 당위성과 절박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의 3품제 실시, 각 언론기관에서의 영어교육 개편에 대한 기획기사 등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진다. 각종 제도개선

과 예산지원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타당성 있는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 세계 인구 17억이 영어구사

대학들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표방하고 학생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영어강의는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복잡한 학문개념을 국제언어인 영어로 습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세계화시대의 공용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세계인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당국, 교수 그리고 학생 모두가 시행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어강의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학생이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대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영어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공부 특히 영어회화 능력 향상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계가 안고 있는 딜레마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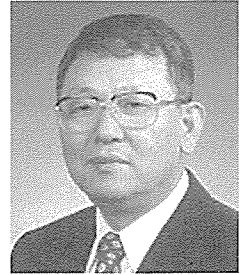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60억 세계 인구 중 영어 사용 인구는 각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17억3천만명으로 인류전체의 1/3에 가깝다고 한다. 유럽연합(EU) 시민의 절반 이상이 별 어려움 없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아시아인이 3억5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시아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비즈니스 언어로 영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인종과 민족, 지역, 종교 이외에 세계는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양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라고들 한다. 노르웨이의 미래학자 스타이나 읍스타드는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얼마나 소화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우리에게 무한한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접하게 해 주는 인터넷 세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영어다. 영어에 미숙하다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미로가 될 수 있다. 자고 나면 변하는 과학기술을 생각할 때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야말로 연구와 실험 못지 않은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과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필자는 한

세계인구 60억중 17억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시민은 절반 이상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새 천년 세계화시대에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면 세계인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KAIST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99학년부터 전체강좌의 15%를 영어로 진행하고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영어에서 해방되면 국제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崔德隣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를 피력해 보겠다. 그동안 우리 KAIST의 학문수준은 연구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교육부문의 수준은 국제적 명성을 얻은 연구부문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뒤쳐진 교육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국제인으로서 감각을 빨리 획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KAIST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영어강좌 확대 바람직

그중 하나가 영어강의이다. 99학년부터 전체 강좌의 약 15%인 65개 강좌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98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부 신입생들에게는 졸업 때까지 토플성적 58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토플성적을 끌어올리고, 영어강의를 청취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국어 강의도 제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은 일반 강의에 비해 몇배 이상의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영어강의 확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기원 신문사에서 실시한 간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 대다수의 지지와 학교당국의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영어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과학자로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가 외국인 전임교수 유치 및 외국학생의 입학에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내국인 교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인 교수를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받게되는 무형의 효과나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부의 유출이 아니라 국부의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유치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영어강의를 통하여 그들이 불편없이 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진정한 캠퍼스 국제화의 완성이라고 본다. 또한 외국

학생 유치로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의 생활양식을 접하게 됨으로써 사고의 확대 및 창의적 사고력 배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다. 단순히 영어강좌의 확대나 외국인을 접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어학수준이 하루 아침에 향상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예컨대 어학센터의 기초영어 교육강화, 학생들에 대한 해외연수기회 제공, 외국대학에서의 학점취득 인정제,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확대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이에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영어교육 개선에 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교육계, 특히 교수 및 학생의 영어강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학교 및 교육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잘 뿌리내린다면 우리 학생들은 머지않아 국제언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라는 굴레에서 자유스러워진다면 활발한 학회활동, 의견교환 등 국제인으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㉟